

교육감 적합도 김대중 21.0% 압도적 1위...이정선 11.7%

광주일보·리얼미터 - 전남광주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현직 프리미엄 영향...10명 중 2명 부동층, 향후 선거 판도 변수
장관호 6.2·오경미 5.9·김용태 5.8·강숙영 5.3·김해룡 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선거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타 입지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김 교육감 지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타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응답자의 10명 중 2명은 통합 교육감과 관련, 적합한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해 유보층의 표심에 따라 향후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통합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에 힘입어 21%의 후보 적합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1.7%의 지지를 받았다. 김대중 도교육감과 이정선 시교육감의 차이는 9.3%포인트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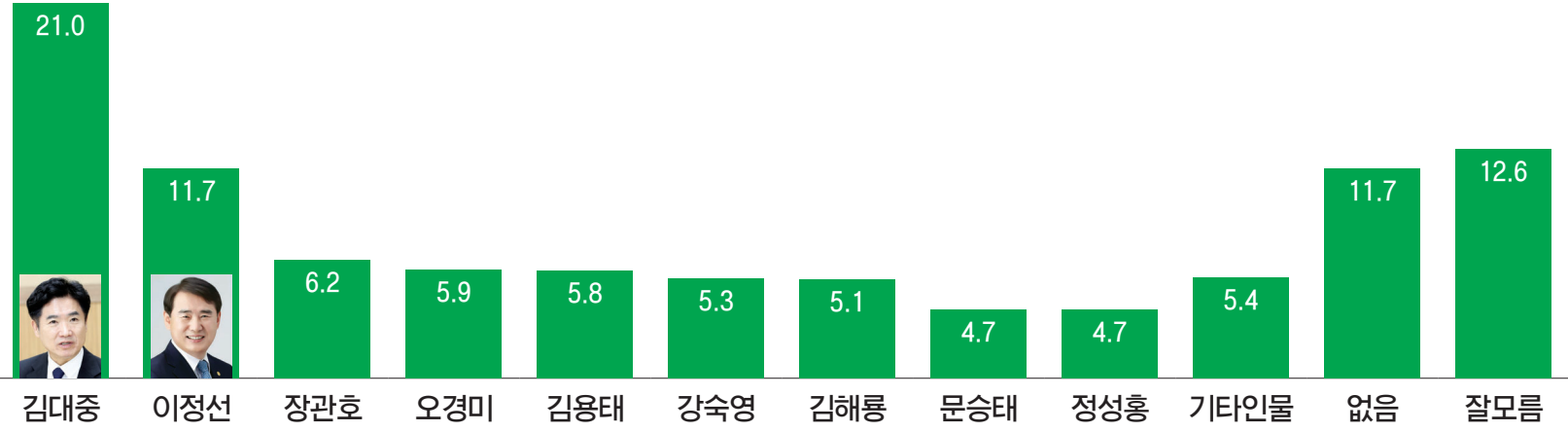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6.2%의 지지를 얻어 현직 교육감을 제외한 후보군에서 가장 높았

다. 이어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5.9%,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5.8%,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5.3%,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5.1%, 문승태 전 국립순천대학교 부총장과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각각 4.7%였다. 기타인물은 5.4%로 나타났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텃밭과도 같은 전남(28.9%)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김 교육감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한 전남 중서부권에서 36.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교육감은 광주인접권에서 24.8%, 남부권 27.6%, 동부권 26.4% 등 전남 내에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남에서는 김 교육감을 제외한 타 후보군은 한 자릿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는데, 김 교육감은 광주에서 10.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광주시 동구에서 15.3%를 기록, 이정선 광주시교육감(15.2%)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특별시장교육감 후보 적합도 (단위:%)



김 교육감은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 안팎의 고른 지지를 받았는데 70세 이상(27%)에서 가장 높았다. 또 남성(23.4%), 유보층(2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4.3%)에서 높게 나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김 교육감보다 광주(19.1%)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전남에서 한 자릿수(6%)를 기록하며 김 교육감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 남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22.8%)를 받았고,

북구(20.3%)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18~29세 연령층(15.3%)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1.7%, '잘 모름' 응답 역시 12.6%로 높게 나타나면서, 유보층의 표심이 어디를 향하는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없음' 응답이 각각 15.9%, 17.2%로 높게 나타난 18~29세, 30대와 '잘 모름'이라고 답한 30대(15.1%)와 40대(17.7%)의 선택을 받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시와 전남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통신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2.5%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응답자 10명 중 7명 민주당 후보 지지

통합단체장 정당 후보 적합도
2위 혁신당 6.2% 3위 국힘 6.0%
18~29세 젊은층 15.3% 국힘 지지

차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 자치단체'를 이룰 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이 가까운 사·도민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한 가운데, 비민주당 진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와 전남도민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만약 내일이 선거일이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8%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았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69.1%로 광주시(68.4%)보다 미세하게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77.4%)과 60대(75.4%) 등 고령층에서 70%를 상회하는 압도적 지지세를 보였다.

정치적 발달인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의 당색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민주당 계열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조국혁신당 후보가 6.2%를 기록하며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고, 국민의힘 후보는 6.0%로 뒤를 이었다. 두 정당 후보 간 격차는 0.2%에 불과해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 상황이다.

이어 진보당 후보 2.8%, 개혁신당 후보 1.9%, 정의당 후보 1.1%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정당 후보는 4.2%, 무소속 후보는 1.0%의 선택을 받았다. 투표할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유보층은 각각 4.6%와 3.3%로 집계되어 총 7.9%의 부동층 존재를 확인했다.

특성별 분석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는 만18~29세(15.3%)와 보수층(20.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조국혁신당 후보는 50대(8.7%)와 중서부권(6.4%) 등에서 평균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진보당 후보는 광주 북구(3.8%)와 전남 광주인접권(3.3%) 등 특정 지역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와 전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30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곡성군 도민공청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도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리얼미터 의뢰 성인 1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시스템 진행

광주일보 여론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광주와 전남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

상번호 100%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표본오차 ±2.5% 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2만1298명 중 1502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 7.1%를 보였다. 가장 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본 사 인 사

▲ 이용삼 : 서부취재본부 영광주재 차장 <2월 2일자>

중

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일래(430205-1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여문1로 90, 804동 1408호 (문수동, 원양파크맨션)
피상속인 망 이일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6년18호로 신청하여 2026년 1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2월 2일
• 상속인 : 이용혁(710315-1XXXXXX)
광주 북구 서양로 155, 113동 2301호 (우산동, 무등산자이앤아울름아파트 1단지)
• 신고기간 : 2026. 2. 2. ~ 2026. 4. 12.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용혁의 주소

74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kwangju.co.kr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4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062) 227-9600 예향구독 (062) 220-0550